

>> 2008년 총회 협회장 인사말



협회 지명석 회장은 2월 19일 개최된 협회 제6기 정기 총회 인사말을 통해 2007년도 협회 추진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성공이 가능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한 회원사, 지자체, 재활용업체 및 모든 국민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도에도 협회 창설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스티로폼 재활용사업이 확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총회에서 협회장 인사말을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협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협회는 스티로폼 재활용률 70% 달성, 생산자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운영의 내실화, 그리고 스티로폼 포장재 이미지 개선 등 세 가지를 사업목표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자체의 분리수거·재활용 사업에 지속적으로 협력함은 물론 2005년 환경부의 'EPR지원 유공자 표창'으로 일시 중지되었던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행사'를 재개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사기 앙양을 꾀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초·중·고학생들을 위한 스티로폼 재활용 현지견학 실시, 국제환경산업전 참가, KBS-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재활용 홍보 등의 기존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사회연대를 통하여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및 처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들의 EPS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함으로써 향후 이미지 개선을 통한 EPS의 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홍보전략 구축의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시작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협회의 공제조합 업무에 있어서도, 수산물 상자의 경우 kg당 125원이던 분담금 기준액을 95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의무대상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와 함께 그로 인한 협회비의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제반 경비 지출의 절약 및 새로운 의무대상자의 발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공제조합 회원의 수는 2006년 326개소에서 356개소로 늘었으며 협회 수지예산 운영도 어려운 속에서도 무난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목표인 69%도 차질없이 이행하여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협회 설립 초기인 1994년도 21%에 불과했던 스티로폼 재활용률은 2007년도 말 현재 목표했던 대망의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련의 추진 사업의 성공은 협회를 중심으로 원료업체와 재활용 의무생산자 등 회원사와,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업체,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2008년도에도 유가불안, 세계 경기 부진 등의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난 해에 이어 스티로폼 생산업체나 사용업체, 재활용 관련 업체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협회 창설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스티로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지를 모은다면 주변 여건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스티로폼의 재활용은 더욱 확고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모든 일들이 계획하신 대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www.eps.or.kr
www.eps.or.kr



Speech of Chairman

On behalf of KFRA, I would like to extend my thanks to all the guests, member officers and the other staff for attending this meeting despite your busy schedules.

In the year 2007, KFRA steadily achieved the following three targets:

- attained an EPS recycling rate of 70%,
- continued the fruitful operation of KFRA as a Foam Plastic EPR Association,
- improved the overall image of EPS packaging.

We have cooperated consistently with local governments for separate collection and recycling of EPS. KFRA also resumed its program of 'Awarding prizes for exemplary EPS recycling' by local government and for the helpers for EPS recycling, which was broken off temporarily according to 'Commendation for the men who support the EPR'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year 2005 to encourage people who work in this field.

We have also been developing various existing businesses such as:

- site visits to EPS facilities by NGOs, and both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 participa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irs
- and advertising by the mass media like Korea Broadcasting System, etc.

We received a report entitled 'A survey on the using and disposal of foam plastics' through 'Korea Zero Waste Movement Network' and this shows the images of EPS of end-users. KFRA will utilize this report and the containing basic data to set up a strategy to improve the fixed idea of EPS of end-users.

Moreover, in EPR business which started from the year 2003, KFRA has tried to reduce the burden of recycling obligators(ex. EPS users) by lowering the standard recycling fee from 125KRW/kg(USD 0.13/kg) for fishery boxes to 95KRW/kg(USD 0.1/kg). KFRA has made up for this reduction in revenue by operating within tighter budget constraints and lowering expenditure while at the same time encouraging new recycling obligators to join. As a result, the number of members of recycling obligator has increased from 326 in 2006 to 356 in 2007. KFRA as a business has also achieved a good profit, despite many difficulties.

In addition, the recycling target of 69% for the recycling obligators in the year 2007 seemed to ensure a smooth

transition, and the result will be reporte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y the end of April.

With such a successful outcome, we finally accomplished long-cherished 70% in EPS packaging recycling rate at the end of 2007, compared to the figure of only 21% when KFRA was founded in 1994.

I strongly believe the success of these promotional businesses has only been made possible due to KFRA as the central figure, member firms of resin makers and recycling obligators, local governments, recycling companies, and all of citizens being united in their goals towards EPS recycling.

In 2008, we assume that companies related to EPS, producers or recyclers may experience similar difficulties like last year because there will be remaining uncertainties in areas such as unstable oil prices and slow global business.

However, if all of us try to keep our original intention of foundation of KFRA and make our efforts to revitalize EPS recycling market, I think we will be able to overcome all these difficulties. I also believe that EPS recycling will resolutely advance through such a process. For the success and the development of EPS worldwide, I would encourage you to give your ongoing support and continued interests in EPS recycling.

Once again, thank you all so much for your attention, and I wish you and your family all the best for 2008.

Thank you.

Feb. 19, 2008
Chi Myoung-Suk
Chairman of KFRA

